

평창올림픽 기간에 돌아보는 올림픽과 스포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김승욱 교수 (발행인)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

삼수 끝에 한국의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대회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피겨스케이팅과 함께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이스하키 분야에 북미아이스하키 리그(NHL)가 불참을 선언했고, 국가주도 도핑조작 스캔들로 러시아선수단의 출전이 금지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의 흥행에 염려를 했지만, 95개국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역대 최다였던 2014년 소치올림픽의 88개국에 비하면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참가로 흥행과 평화올림픽임을 과시하려는 정부와 이를 비판하는 야당간에 정치적 갈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만큼 정치적 견해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02 월드컵 당시에 정파에 관계없이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요즈음처럼 정치적 갈등이 심한 시기에도, 정혁선수가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역대최고인 4강에 진출하자 모든 신문이 한 마음으로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 달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과 스포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달의 표지 인물로 평창올림픽 유치실무위원장을 역임한 박선규 전 문화체육부차관으로부터 유치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그가 크리스천 언론



인으로써 중군기자 활동한 이야기와 최근활동인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더불어 꿈>>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손봉호 대표주간께서는 “올림픽의 타락과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올림픽의 부패, 성적 타락, 프로들의 출전을 비판하며 이 모든 것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헌수 목사는 올림픽 전반에 대한 기독교계의 비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올림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올림픽의 인본주의, 상업주의, 민족주의 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통한 놀이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놀이 공동체를 형성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 경기를 시키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태권도 9단인 배성민교수는 “신체가 주는 참다운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버태권도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송인규교수의 책갈피를 통해서 운동경기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고정칼럼의 제목을 “Book & culture”로 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영화읽기를 맡은 숭실대학교의 남정욱 교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영화 <벤허>와 반기독교적 영화로 주목을 받았던 <밀양>을 연결시켜서 그의 독특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에 처음 소개된 국민대 조소과의 이웅배 교수는 “공동체와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예술가의 자유로운 사고와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나만의 하나님을 넘어 만유(萬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최충희 사모의 수필, “고통, 빛의 시간”과 이우제 백석대 교수의 “기독교세계관으로 읽는 요한계시록” 두 번째 글을 실었습니다. 